

1. 개요

- ☐ 일시/회의방법 : 2020. 11. 24(화). 10:30~12:30 / 영상회의
- ☐ 장소 : 한국건강농업연구소 회의실
 - * 서울 성동구 아찬산로17길 49 생각공장데시앙플렉스 907호
- ☐ 참석 인원 : 16명
 - (청년희망위) 박경위원장, 김용현·김종화·마상진·신소희·이민수·조경호·추미경·최두현 위원 9명 * 불참(5명)
 - (농특위 사무국) 임성규팀장, 윤종혁, 오황기 3명
 - (관계부처) 해수부 한성민 사무관, 농촌진흥청 유범선 인재육성팀장·윤성환 지도사
 - (한국건강농업연구소) 송완구박사
- ☐ 주요 안건
 - 본 위원회 의제관련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 및 검토
 - * 「다원적 농어촌발전의 신 주체로서 청년층 지원 및 육성방안」
 - 농산어촌청년희망위원회 향후 운영방향 논의 등

2. 회의 결과

- ☐ 본 위원회 의제관련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 및 검토의견
 - 여러 부처에서 추진되는 사업들이 청년들에게 중복 적용될 수 있으므로 통합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 필요
 - 통합패키지 사업은 지역에서의 실행주체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지역단위 주체(지역센터, 청년센터 등)가 반드시 필요

- 중앙단위뿐만 아니라 시·군·구 등 지자체에 별도 전담인력 또는 전담부서 지정 필요
 - ※ (해수부 의견) 농어촌청년 종합계획 및 실태조사는 농식품부, 해수부 각각 실행될 필요성이 있으나, 농촌과 어촌에 대한 구분 기준을 명확히 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
 - ※ (농촌진흥청 의견) 전담부서 기존 조직체계 활용, 담당공무원 전문교육 실행을 통해 잦은 인력교체 대비, 기존 청년조직 적극 활용 등
- 농산어촌 활동가 및 전문인력 육성교육기관 설립보다는 기존 대학의 학점제 프로그램 공모 등을 통해 경쟁과 관심 유도
- 양성된 인재들이 지역 일자리와 연계될 수 있는 방안 제시 필요
- 어촌 청년에 대한 정책은 어촌특성에 맞는 차별성이 필요하므로 수산TF 별도 연구검토 제안

3. 향후 추진일정

- ☐ 코로나-19 여건을 감안하여 워크숍 추진 검토(12월중)